

악! 박주영 또... 허정무號 비상

'넓적다리 부상' 내일 로리안전 참가 불투명

프랑스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주영(25·AS모나코)이 무릎 위쪽의 넓적다리를 다쳐 6일(이하 한국시각) 로리안 원정경기 참가가 불투명하다고 구단이 밝혔다.

모나코는 6일 새벽 2시 시작될 2009~2010 프랑스 정구리그(리그1) 로리안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상선수 현황을 알렸다. 일단 모나코는 넓적다리를 다쳐 재활 중인 미드필더 디에고 페레스 없이 이번 원정경기를 치른다고 못박았다.

이어 박주영(넓적다리)을 비롯해 이고르 플로·세드리 롱공구·세바스티안 푸이그레

니에·요한 몰로 등 몇몇 선수는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로리안 원정에 동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주영은 지난달 28일 르망과 홈 경기에서 전반전에 공중볼을 다루다 눈여저라가 찢어져 교체됐지만 2일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컵 결승에서는 연장까지 120분을 뛰었다.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박주영의 잦은 부상 소식은 허정무호 코치진을 긴장케 하



고 있다. 박주영은 올 시즌 정구리그 8골과 프랑스컵 1골 등 모두 9골을 터트리며 맹활약했지만, 이번이 부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 1월31일 리그 22라운드 OGC 니스와 홈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몰아넣어 3-2 승리를 이끈 후로는 석 달 넘게 득점포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생체회 '가정의 달' 행사 풍성

게이트볼·축구·택견대회 잇따라
어르신 전담 지도자 교육 참가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웃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행사가 전남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이하 도생체회)는 이달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와 축구대회·전국택견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도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제19회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어버이날인 5월 8일 나주초 운동장에서 열리고, 제6회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14일부터 3일간 화순군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제6회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전국택견대회가 22일 순천대 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또 제16회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불림대회가 7일부터 9일까지 함평불림장에서,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생활체

조경연대회가 8일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제18회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가 8일과 9일 화순군 공설운동장 내 족구장에서 각각 진행되고, 제13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대항 불림대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강진군에서 이어진다.

도생체회는 이밖에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국민생활체육의 주관

로 3일간 열리는 2010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참가시켜 생활체육 전문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탁우 회장은 "5월에는 다양한 행사가 많아 생활체육에 참가하며 건강을 다져온 동호인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축구, 4년만에 상암별 채우기 도전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 벌써부터 예매 열기 뜨거워

'상암별을 채워라.'

한국축구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4년 만에 서울월드컵경기장 만원 관중에 도전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6일 오후 7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대표팀이 남아공 월드컵 본선 개막 전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으로, 월드컵 출정식을 겸해 개최국 축구팬의 관심이 많다.

일단 입장권 예매 첫날부터 만원 관중에 대한 기대는 부풀어 올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티켓 예매 사이트(www.kfaticket.com)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입장권예매를 시작한 3일 하

루 동안 무려 2만4648장(3일 오후 6시 현재)이 팔렸다.

대표팀이 아직 소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매 첫날 2만 장이 넘는 표가 팔린 것은 예상 밖이다. 협회 관계자도 "보통 예매로 입장권이 소진되지 못해 현장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이런 추세라면 몇 천 장의 현장 판매분을 미리 때 놓아야 할 것 같다"며 놀란 모습이다.

2002 한일 월드컵 개막경기가 치러진 '한국축구의 상징' 서울월드컵경기장은 6만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좌석운용 상황에 따라 몇백 석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입장권이 매진된 것은 개장 기념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2001년 11월10일 크로아티아와 평가전(6만4000명)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있었다.

독일 월드컵 개막 직전인 2006년 5월26일 열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6만4835명)은 만원 관중 앞에서 치러진 마지막 경기였다. 이 경기 이후로는 6만 명을 넘긴 적도 3년 전인 2007년 6월2일 네덜란드와 친선경기(6만2884명) 뿐이다.

물론 허정무 감독 부임 이후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꽉 찬 적은 없다. 가장 많은 관중이 상암별을 찾은 때는 2008년 5월31일 요르단과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5만3410명)이다.

허정무호가 첫 걸음을 댄 2008년 1월30일 칠레와 친선경기 때는 강추위 속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개장 이후 치른 A매치 중 역대 최소 관중(1만501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에콰도르와 평가전은 허정무호 출범 후 최다 관중 기록이 다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장미란, 2009년 세계 역도 퀸

남자선수는 中 루상윤 선정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7·고양시청)이 작년을 빛낸 세계 최고의 역도선수로 선정됐다.

국제역도연맹(IWF)은 장미란이 '2009년 최고의 여자 선수'를 뽑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각국 역도연맹 관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각 체급의 1~3위 전체를 나열하고 1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IWF에 따르면 장미란은 투표에서 카자흐

스탄의 스베틀라나 포도베도바·폴리아 찬스와 등과 득표 경쟁에서 압승했다.

장미란은 작년 11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75kg) 용상에서 187kg을 들어 올려 세계기록을 경신했으며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인상에서 은메달을 땀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를 4년 연속으로 제패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까지 포함해 세계대에서 5년 동안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는 전례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한편 '올해의 남자 선수'는 작년에 세계 신기록 두 개를 수립한 77kg급 세계선수권자 루상윤(중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한국 서틀룩 남녀단체 세계정상 도전

한국 서틀룩이 세계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상 도전에 나선다.

김중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6일 제26회 세계남녀단체 및 제23회 세계여자단체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한다.

남녀단체선수권대회는 남자(토마스컵)와 여자(우버컵)로 따로 열리다가 1984년부터 2년마다 함께 열리고 있다. 남녀단체선수권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혼합단체전이 펼쳐진다.

개인선수권대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만 건너뛰어서 매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미국행... '타임 100인' 행사 참석

김연아(20·고려대)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하 타임 100)' 선정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4일 "김연아가 '타임 100인' 선정을 기념해 타임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며 "현지에서 행사를 끝내고 6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국한 김연아는 5일(한국시각) 오전 미국 뉴욕 타임워너센터의 링컨센터에서 치러지는 타임 100인 선정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연합뉴스

오은선 '14좌 완등' 인증받아

흘리 여자 인터뷰 "축하한다"

"(14좌 완등) 축하한다"(흘리)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3일(한국시각) 오후 흘리(86·미국) 여사와 면담하고 14좌 완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이날 네팔 포카라에서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한 오 대장은 히말라야 고봉 등정에 관한 기록을 50년 동안 집계해온 최고의 권위자인 흘리 여사와 한 시간가량 면담했다.

흘리 여사는 오 대장에게 우선 이변에 오

른 안나푸르나 등정에 관해 질문하고서는 14좌 완등 경험을 말하던 에두르네 파사반(36·스페인)이 최근 제기한 오 대장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오 대장은 파사반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자 흘리 여사는 오 대장에게 "14좌 완등을 끝냈느냐"고 마지막으로 물었고 오 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흘리 여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환하게 웃어 오 대장이 여성 최초로 14좌 완등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기업인사개발 전문 교육기관 AIFA 아이피애프로빙이카대미기 운영하는

교육비 전액무료 중소기업 무료 직무교육!

■ 지원 기업: (주)한진해운,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강 이벤트 "무료 직무교육 들고 상암관도 받치"]

당기교육 1과목 수강시 문화상품권 3만원, 3과목 수강시 문화상품권 5만원 증정!
특수직무 과목 수강시 문화상품권 1만원 증정!

III. 교육대상: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자 및 대기업 유망인력

■ 지원 대상: 교육청을 통해 기업에 근무자 및 대기업 유망인력

■ 지원 비용 안내

구분	교육비	교육자료	교육장	교육시간
1. 일반직무	무료	무료	무료	1시간
2. 전문직무	무료	무료	무료	2시간
3. 특수직무	무료	무료	무료	1시간

IV. 교육장소: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자 및 대기업 유망인력

■ 지원 대상: 교육청을 통해 기업에 근무자 및 대기업 유망인력

■ 지원 비용 안내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자료, 교육장, 교육시간 포함)

■ 문의: 02-523-2271

제주일영투어와 함께 떠나는

안라산등반/알티길/관광

유리산, 리움대, 금빛동굴 (1박2일)

1인 72,000원 (4인 기준)

9월 11일 ~ 11월 20일

1박 135,000원 (생생한거린)

2박 135,000원

1박 89,000원

제주일영투어 T.064-727-2277